

# “명륜당(明倫堂)” 명칭의 유래에 관한 연구

-중국의 역대 고문헌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rigin of “Myeongnyundang(明倫堂)”, the Common Name of the Main Lecture Halls at Confucian Schools

-Based on Chinese Historical Documents-

백 소 훈\*

Baik, So-Hun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 Abstract

This paper studied the origin of Myeongnyundang(明倫堂), the common name of the main lecture halls at confucian schools in ancient China. Through an extensive investigation of local chronicles, biographies, decrees and construction essays, it found the first Myeongnyundang were titled on the main hall of a local school in the early Southern Song(南宋) period, and it might become the most popular name due to Zhuxi(朱熹), a famous confucian scholar in the Southern Song dynasty. In Yuan(元) period, it almost become the fixed name for the main lecture hall at local confucian schools, and even the official government documents began to use it as a common noun since the beginning of Ming(明) dynasty.

주제어 : 명륜당, 유래, 학교, 주희

Keywords : Myeongnyundang, Origin, Gonfucian School, Zhuxi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관습적으로 ‘대성전(大成殿)’과 ‘명륜당(明倫堂)’은 유학 교육을 담당하는 관학(官學)을 구성하는 두 주요 건축을 가리키는 일반명사처럼 쓰여 왔다. 하지만 명칭 자체가 건축의 기능을 직관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에 특별한 역사적 혹은 문화적 유래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중 ‘대성전’은 1104년 송 휘종이 국자감 벽옹의 문선왕전을 대성전으로 개칭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유래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sup>1)</sup> ‘명륜당’의 유래에

대해서는 명확한 문헌기록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중국 전역의 관학뿐 아니라 조선 한양 성균관 명륜당까지 남송시기 대유학자 주희의 글에서 집자(集字)하여 제작한 명륜당 현판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주희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학술적으로 고증된 바 없고,<sup>2)</sup> 학계에서는 대략 남송시기부터 사용되었다고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흥미롭게도 조선 성균관의 「명륜당기(明倫堂記)」에는 “혹자가 문기를 성인의 가르침은 여러 갈래가 있는데 이 당의 이름을 유독 ‘명륜’이라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라는 구절이 있는데,<sup>3)</sup> 여기서 조선 세종 때 유학자들 역시

徽宗一』：“(三年)十一月甲戌，幸太學，官論定之士十六人，遂幸辟雍” 참조. 송녕3년 즉 서기1104년의 기록이다.

2) 『嘉靖尤溪縣志』에 수록된 「朱熹重修學記」 및 「明倫堂銘」에 주희가 乾道9년(1169)에 우계현 현학의 중수를 기념하여 명륜당명(明倫堂銘)을 써 준 일은 유명한데, 중국 강남지방에 주희의 필적이라 전해지는 명륜당 현판이 다수 전해지고 있고 심지어 조선 한양 성균관의 명륜당 편액 중 하나도 주희의 글에서 집자해서 제작한 것이다. 단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바는 없다.

\* Corresponding Author : baeksohun@daum.net

이 논문은 2020년 서울시 “성균관과 문묘 및 유사유산 기초현황 조사 용역”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1) 『宋史·卷一百五·志第五十八·禮八·吉禮八·文宣王廟』：“徽宗崇寧初又詔辟雍文宣王殿以‘大成’爲”， 『宋史·卷一十九·本紀第十九·

## 8 논문

모든 학교들의 강당을 명륜당이라고 통일하여 부르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명륜당 명칭의 유래와 관학의 강당 명칭으로 통일된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방법

연구는 문헌 고증을 통해 진행하였다. 일차적으로 중국과 한국의 선행 연구들과 고문헌들을 대상으로 명륜당의 유래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역대 중국 학교 강당의 명칭들을 찾아 정리하고, 그중 명륜당이라는 명칭의 출현과 후 이 명칭이 보편화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문헌의 시대범위 하한선은 명나라 초인 14세기 말로 설정하였다. 이유는 일차조사에서 발견한 명나라 예부에 관한 서적인 『예부지고(禮部志稿)』의 “학규를 반포하여 학교의 가로누인 비석에 새겼다. 홍무15년 예부에 명하여 학교 금령 12조를 천하에 반포하였는데……반포된 금령을 새긴 가로누인 비석을 명륜당 왼쪽에 설치하라 명하였다”라는 기록에서<sup>4)</sup>, 명나라 건국 초인 홍무15년(1382)에 전국 향교 강당 명칭이 이미 명륜당으로 통일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명초 읍지들을 보면 모두 학교 강당을 명륜당이라 기재하고 있다.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중국 고문헌은 읍지, 사서, 문집, 법령서, 예제서, 학교지, 백과사전 등으로 다양하다. 이중 읍지는 현존하는 당대 읍지 1종, 송대 읍지 33종, 원대 읍지 14종을 모두 분석하였고, 14세기 말 이후에 작성된 명, 청대 읍지이더라도 송, 원시기 학교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종적으로 송, 원시기 학교에 대한 기록을 포함한 읍지들만 선별한 결과, 대다수가 강남지방과 북건지방의 읍지들이었는데, 이는 전란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이들 문헌을 기반으로 역대 중앙 유학 교육기관과 지방 유학 교육기관 강당의 명칭을 추적하여, 명륜당이라는 명칭이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어떻게 보편화되었는지 분석하였으며, 주희와의 관련성을 검

토하였다.

## 2. 명륜의 의미와 중국 역대 중앙 유학 교육기관의 강당 명칭

### 2-1. 명륜의 의미

‘명륜(明倫)’은 인륜을 밝히고자 하는 유학교육의 목표를 반영하는 단어로, 『맹자(孟子)』의 “상서학교(庠序學校)를 설치하여 가르친다하였는데, 상(庠)은 보살핌[養], 교(校)는 가르침[教], 서(序)는 활쏘기[射]라는 뜻입니다. 일컫기를 하나라는 교(校)라 하였고, 은나라는 서(序)라 하였으며, 주나라는 상(庠)이라 하였는데, 학교[學]는 세 왕조가 함께 한 것으로 모두 인륜을 밝히는 것[明人倫]이었습니다. 인륜이 위에서 밝아지면 백성들은 아래에서 친해집니다”라는 구절에서 유래하였다.<sup>5)</sup> 중국과 한국의 역대 중앙 및 지방 유학 교육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기문들에 이 글의 전체 혹은 일부가 인용된 것이 종종 발견되는데, 이는 맹자의 철학이 역대 학교 건설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 2-2. 중국 역대 중앙 유학 교육기관의 강당 명칭

‘명륜’이 학교 강당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먼저 중국의 역대 중앙 유학 교육기관의 강당 명칭을 살펴보면, 한나라부터 당나라까지는 강당(講堂), 학당(學堂), 논당(論堂), 강론지당(講論之堂)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당호가 아니라 일반명사로 보이는데, 강당에 편액을 걸지 않았거나, 강당의 당호가 수차례 바뀌어 일반명사로 기록하였거나, 혹은 강당에 전체 학교 명칭의 편액이 걸려있었을 수 있다.

표 1. 중국 중앙 유학 교육기관의 강당 명칭(한~당)

왕조	학교	기록명칭	출처
漢	太學	講堂	洛陽記, <sup>6)</sup> 後漢書 <sup>7)</sup>
南朝梁	國子學	學堂	隋書 <sup>8)</sup>
唐	國子學	學堂	大唐開元禮 <sup>9)</sup>
		論堂, 講堂	舊唐書 <sup>10)</sup>
	太學	講論之堂	大唐郊祭祀 <sup>11)</sup>

북송 태학의 강당은 문헌상 초기에는 강론당(講論

3) 조선 『太學志』에 수록된 성간(成侃, 1427~1456)의 글. 「明倫堂記」: “或曰, 聖人之教, 亦多端矣, 名是堂獨以明倫, 何也?” 성간은 이 글에서 이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그에 대한 대답으로 명륜이 맹자의 가르침에서 유래하였음을 기술하고 있다. 단, 명륜의 유래일 뿐이지, 왜 유독 여러 명칭 가운데서 하나로 통일된 것인지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

4) 『禮部志稿·卷七十·學校備考』: “學規頒鑄學校臥碑. 洪武十五年命禮部頒學校禁例十二條於天下…仍命以所頒禁例鑄勒臥碑置於明倫堂之左” 참조. 명 홍무15은 서기1382년이다.

5) 『孟子·滕文公上』: “孟子曰…設庠序學校以教之庠. 者養也. 校者教也. 序者射也. 夏曰校, 殷曰序. 周曰庠, 學則三代共之, 皆所以明人倫也. 人倫明於上, 小民親於下” 참조. 庠, 序, 學, 校은 주나라 포함 그 이전 시대 학교들의 명칭이다.

6) 『洛陽記』: “太學在洛陽城, 故開陽門外, 去宮八里. 講堂, 長十丈, 廣三丈” 참조. 西晉시기에 한나라 태학 강당이 남아있었다.

7) 『後漢書·翟酺傳』: “光武初興, 潛其荒廢, 起太學博士舍, 內外講堂, 諸生橫巷, 爲海內所集” 참조.

堂)<sup>12)</sup>, 강서당(講書堂)<sup>13)</sup> 등 일반명사로 기록되었지만, 1091년<sup>14)</sup> 철종의 시학 기록부터 돈화당(敦化堂)이라는 당호로 기록되기 시작한다.<sup>15)</sup> 이것이 문헌상 확인되는 가장 이른 중앙 유학 교육기관 강당의 당호이다.

남송시기인 1143년 임안부에 건설된 태학의 강당은 처음에는 북송 태학의 명칭을 따라 돈화당이라 불렀으나, 이후 숭화당(崇化堂), 화원당(化原堂), 숭화당(崇化堂) 순으로 개칭되었다.<sup>16)</sup> (<그림 1> 참조)

한편, 남송의 국학 가운데에는 태학과 별개로 왕자 제재(王子弟才)의 교육을 위한 종학(宗學)이 있었다. 궁학(宮學)으로 운영되다가 1216년 별도로 시설을 건설하였는데 입교당(立教堂)이라는 강당이 있다가, 1270년에 추가로 명륜당(明倫堂)이 건설되었다.<sup>17)</sup> 비록 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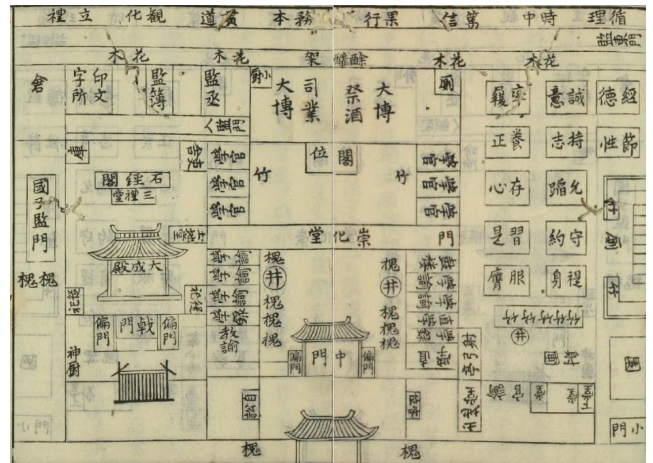


그림 1. [日] 『제도통(制度通)』 「남송태학도(南宋太學圖)」. 18세기 일본 문헌으로 남송 태학의 배치도가 수록되어 있다.

학은 아니지만 이것이 역대 중앙 유학 교육기관 중 처음으로 명륜당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사례이다.

원나라 때에는 국자감 강당에 명륜당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원나라 국자감은 1306년 완공되었는데,<sup>18)</sup> 명나라 말 장일채(蔣一葵)가 엮은 『요산당외기(堯山堂外紀)』에 원나라 때인 1327년 국자감 최주 구양현(歐陽玄)이 ‘명륜당’에서 진사시 장원들의 예방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원나라 국자감 강당의 명칭이 명륜당이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sup>19)</sup> 이는 역대 중국 역대 국자감 혹은 태학 강당 중 유일하게 명륜당 명칭을 적용한 사례이다.

명나라는 건국 초인 1382년에 지금의 남경인 응천부에 국자감을 완공하고, 강당 명칭을 이륜당(彝倫堂)이라 하였다.<sup>20)</sup> 명 태조와 유학자들이 지방학교들의 강

宮學爲宗學…御書閣, 舊在明倫堂之上. 咸淳六年, 守臣潛說友奉朝旨重建, 而別創明倫堂於閣之前…立教堂…” 참조. 嘉定九年은 서기1216년이고, 咸淳六年은 서기1270년이다.

18) 『欽定古今圖書集成·經濟彙編·禮儀典·第二百零卷·文廟祀典部彙考三』 “按『續文獻通考』, 大德六年六月, 建文宣王廟於京師. 先是, 京師未有孔子廟, 而國學寓於他署. 至是, 左丞相哈刺哈孫乃奏始建之大德七年閏五月壬戌, 詔禁犯曲阜林廟者. 冬十月, 給大都文宣王廟洒掃戶五. 按『元史成宗本紀』不載. 按『續文獻通考』云云, 大德十年, 文宣王廟成, 行釋奠禮” 참조. 大德十年은 서기1306년이다.

19) 『堯山堂外紀·卷七十二·元·歐陽玄』: “秦定間, 歐陽原功官國子監, 丁卯八月, 崇天門傳臚賜進士右榜第一人阿察赤, 左榜第一人李黼, 皆肄業國學日新齋, 原功西廳授學生也. 是日, 京尹備鼓樂旗幟麾蓋甚都, 導二狀元入學謝師, 拜原功明倫堂” 참조. 秦定丁卯은 서기1327년이다. 구양현의 제자 이색(李穡)이 고려로 돌아와 공민왕 때인 1367년에 증진된 성균관의 대사성으로 임명되어 매일 ‘명륜당’에서 강학을 했다는 『고려사』 기록으로 미루어 원나라 국자감 강당 명칭 역시 명륜당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20) 『欽定古今圖書集成·經濟彙編·禮儀典·第二百零卷·文廟祀典部彙考三』: “按『續文獻通考』, 洪武十五年作, 文廟成, 遣官祭以太牢, 上遂視學釋菜. 始詔司府州縣衛通祀孔子, 頒釋奠儀”에서 명나라 국자감이 1382년에 완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明會典·卷四十九·禮部八·視學』: “洪武十五年定. 前期一日, 有司洒掃殿堂,

8) 『隋書·卷九·志第四·禮儀四』: “梁天監八年, 皇太子釋奠…案今學堂凡有三階” 참조.

9) 『大唐開元禮·卷五十二·吉禮·皇帝視學』: “視學前一日, 所司灑掃學堂之內外, 尚舍設大次于學堂之後” 참조.

10) 『舊唐書·卷二十四·志第四·禮儀』: “(寶應二年)八月, 國子學成. 祠堂, 論堂, 六館及官吏所居廳宇, 用錢四萬貫, 拆曲江亭子瓦木助之. 四日, 釋奠, 宰相, 常參官, 軍將盡會於講堂, 京兆府置食, 講論. 軍容使魚朝恩說『易』, 又於論堂. 畫『周易』鏡圖. 自至德二載收兩京, 唯元正含元殿受朝賀, 設宮懸之樂, 雖郊廟大祭, 只有登歌樂, 亦無文, 武二舞. 其時軍容使魚朝恩知監事, 廟庭乃具宮懸之樂於講堂前, 又有教坊樂府雜會, 竟日而罷” 참조.

11) 『大唐郊祀錄·卷十·饗禮二·釋奠文宣王』: “其廟屋四柱七間, 前面兩階, 堂高三尺五寸, 宮垣周之. 南面一屋三間, 外有十戟焉. 東面一屋一門. 其太學講論之堂在廟垣之西” 참조.

12) 『宋史·卷一百零五·志第五十八·禮八·吉禮八』: “文宣王廟, 武成王廟, 先代陵廟諸神祠. 太宗亦三謁廟, 詔繪三禮器物, 制度于國學講論堂木壁” 참조. 송 태종의 재위기간은 976~997년이다.

13) 『文獻通考·卷四十二·學校考三·太學』: “(神宗熙寧)四年…雖有國子監, 僅容釋奠齋庖, 而生員無所容. 至於太學, 未嘗營建, 止假錫慶院廊廡數十間, 生員才三百人. 請以錫慶院爲太學, …乃詔盡以錫慶院及朝集院西廡建講書堂四” 참조. 신종4년(1081) 태학시설이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전, 학생 정원의 증가로 급하게 사경원 및 조집원의 서쪽 낭무를 빌려 태학 강서당을 4개소 설치하였다.

14) 『宋史·卷十七·哲宗』: “(元祐)六年…幸國子監” 참조. 元祐六年은 서기1091년이다.

15) 『宋史·卷一百十四·志第六十七·禮十七』: “視學. 哲宗始視學, 遂幸國子監, 詣至聖文宣王殿行釋奠禮, 一獻再拜. 禦敦化堂, 召從官賜坐. 禮部, 太常寺, 本監官承事郎以上侍立, 承務郎以下, 三學生坐於東西廡, 侍講吳安詩執經, 祭酒豐稷講『尚書』, 『無逸』終篇, 復命宰臣以下至三學生坐, 賜茶, 豐稷賜三品服, 本監官, 學士官等賜帛有差. 遂幸昭烈武成王廟, 酌獻肅揖…徽宗幸太學, 遂幸辟雍, 奠獻如上儀. 詔司業吳綱等轉官改秩, 循資賜章服, 文武學生授官, 免省試, 文解, 賜帛有差. 所司預設次於敦化堂後, 又於堂上稍北當中兩間設次, 南向設禦坐. 又設從官及講筵講書, 執經官並太學官坐禦坐之南, 東西重行異位. 太學生坐於兩廡, 相向並北上. 宰臣以下從官之次, 設於中門外” 참조.

16) 『咸淳臨安志·卷之十一·行在所錄·學校·太學』: “崇化堂…東都講堂舊名曰敦化, 後改崇化, 慶元初改化原, 未幾復今名. 敦化堂因東都講堂舊名敦化, 故改爲崇化堂, 慶元初年又改爲化原, 不久即恢復爲崇化堂” 참조. 慶元初年은 서기1195년이다.

17) 『咸淳臨安志·卷之十一·行在所錄·學校·宗學』: “嘉定九年始改

당은 명륜당이라 칭하면서 굳이 국자감의 강당은 이륜당이라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彝)는 거대한 고대 제사 그릇의 이름으로 일반적으로 거의 쓰이지 않는 글자로, 굳이 ‘이륜’을 직역하면 뿔뿔한 윤리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륜이라는 단어는 『상서(尙書)』 홍범(洪範)편의 태고적 이치를 어지럽히던 곤(鯀)이 죽고 우(禹)가 홍하자 “뿔뿔한 윤리가 비로소 퍼져나갔다(彝倫攸敘)”는 전설에서 비롯되었다. 이륜이라는 이름을 통해 국자감을 향교들과 차별화하고 나아가 국자감에 천하에 인륜을 퍼뜨리는 시발점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한다.<sup>21)</sup>

표 2. 중국 중앙 유학 교육기관의 강당 명칭(북송~명)

왕조	학교	기록명칭
北宋	太學	敦化堂
南宋	太學	敦化堂→崇化堂→化原堂→崇化堂
	宗學	明倫堂
元	國子監	明倫堂
明	國子監	彝倫堂

### 3. 중국 역대 지방 유학 교육기관 강당의 명칭

중국에서는 지방 유학 교육기관을 소속 행정등급에 따라 부학(府學), 주학(州學), 현학(縣學) 등으로 호칭하였다. 송나라 이전 부·주·현학의 강당 명칭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존 유일 당대 읍지인 『사주도경(沙州圖經)』에도 현학에 대한 간단한 기록이 있으나 묘당의 존재만 언급되어 있을 뿐 강당의 명칭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송나라 읍지부터는 학교에 대한 기록이 풍부해졌는데, 여전히 당(堂), 공당(公堂), 강당(講堂), 강예지당(講藝之堂), 회강지당(會講之堂) 등 당호가 아니라 일반명사 혹은 기능을 설명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중 강당(講堂)이 읍지뿐 아니라 학교 건설 관련 기문에서도 압도적으로 자주 쓰였다. 당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일반명사를 쓴 이유는 굳이 당호를 기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당의 명칭이 수차례 바뀌어서(堂名數

易)”<sup>22)</sup> 당호로 기록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편 공자를 모시는 묘당을 가리키는 일반명사로는 예전(禮殿)이 자주 쓰였다. 본 논문에서도 일반명사로 강당과 예전을 사용할 예정이다.

북송부터 명초까지 부·주·현학 강당의 기록명칭 가운데서 일반명사를 제외하고 당호가 있는 것만을 추린 후, 왕조 및 연도순으로 정리하여 <표 3>을 만들었다.

연호 표기에서 ○○초, ○○중 등으로 표기된 경우, 서기 연도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연호의 전기간을 표기하였다. 서기연도는 건설 당시의 명칭인지, 글의 편저 당시의 명칭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편저 혹은 출간 연도를 표시하였다. 향교 강당의 명칭이 개칭된 경우 전과 후로 나누어 기록하여 일부 향교는 중복되기도 한다. 또 참조를 위해 역대 국학 강당의 명칭, 관련 법령 등을 추가하고, 비교에는 개칭, 주희 관련 정보, 법령 원문 등을 기입하였다.

#### 3-1. 북송(960~1127)

분석 결과, 연대가 확인된 가장 이른 지방 유학 교육기관의 강당 명칭은 [표3의 1] 999년에 건설된 북송 흥화부학(興化府學)의 삼례당(三禮堂)이었다. 흥화부학은 정전, 삼례당, 어서각으로 구성되었는데, 정전에 공자 등의 신상 및 종사위까지 모신 것으로 보아 삼례당은 강당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23)</sup> [표3의 2] 1043년에 건설된 북송 북주부학(福州府學)도 강당을 삼례당이라 명명하였고,<sup>24)</sup> [표3의 6] 1078년 중건되기 이전 복청현학(福淸縣學)의 강당도 삼례당이라 하였는데, 여기에는 임시로 공자 상을 강당인 삼례당 안에 모셨었다.<sup>25)</sup>

22) 『咸淳臨安志·卷五十六·志·縣學』에 염관현(鹽官縣) 현학에 관한 종필만(鍾必萬)의 기문에는 “(강)당의 명칭이 수차례 바뀌었다(堂名數易)”는 내용이 있다. 다른 읍지들에서도 북송, 남송시기 향교 강당의 명칭을 여러번 변경한 사례가 대단히 많다.

23) 『八閩通志·興化府』: “咸平元年始有詔立學, 進士方儀, 陳翊願入資助成之. 嗣請於朝, 賜地爲夫子廟, 郡人翕然輸錢三十萬, 建正殿, 塑先聖先師十哲像, 繪從祀於兩壁. 仙游尉段全爲記. 二年, 儀與弟能從子慎言復疏乞修三禮堂並御書閣” 참조.

24) 『淳熙三山志·卷第八·公廡類二·廟學』: “福州府 府學…景祐四年…五年…歷五載乃成. 糜公帑錢千萬, 植宇六十楹, 中設孔子與其徒高弟者十人像, 又繪六十子及先儒以業傳世者於壁. 有九經閣, 三禮堂, 饗舍, 齋廬, 旁翼兩序, 庖次, 井飲, 百用皆給” 참조. 문맥상 좌묘우학 혹은 우묘좌학으로, 묘(學) 영역은 예전을 중심으로 하고, 학(學) 영역은 구경각(문루)-삼례당(강당)-횡사(교사 숙소)순으로 중축선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25) 『八閩通志·福淸縣』: “縣學在縣治之東, 舊先聖像寓於三禮堂, 邑人提學游冠卿始舍地創廟. 宋元豐元年, 復廢廟地建學” 참조. 元豐元年是 서기1078년으로 그 전에 삼례당이 있었는데, 공자의 상을 여기에 “寓”하였다는 것은 임시로 모셨다는 의미이다.

設御輿於大成門東上南向, 設御座於彝倫堂에서 1382년 완공된 명나라 국자감의 명칭이 이륜당이었음을 알 수 있다.

21) 『尙書·洪範』: “惟十有三祀, 王訪于箕子. 王乃言曰嗚呼! 箕子. 惟天陰騭下民, 相協厥居, 我不知其彝倫攸敘. 箕子乃言曰我聞在昔, 鯀殛洪水, 汨陳其五行. 帝乃震怒, 不畀洪范九疇, 彝倫攸斁. 鯀則殛死, 禹乃嗣興, 天乃錫禹洪范九疇, 彝倫攸敘” 참조. 『宋書禮志』: “元帝爲晉王. 建武初, 驃騎將軍王導上疏, 夫治化之本, 在於正人倫. 人倫之正, 存乎設庠序. 庠序設而五教明, 則德化洽通, 彝倫攸敘, 有恥且格也. 父子, 兄弟, 夫婦長幼之序順, 而君臣之義固矣”에서 보듯이 彝倫攸敘는 후대에 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중국 역대 유학 교육기관의 강당 명칭(북송~명초)

번호	학교	왕조	연호	서기연도	기록명칭	비고	출처
1	興化府學	北宋	咸平二年	999	三禮堂	三禮堂→道化堂(→明倫堂(明朝1370))	八閩通志
2	福州府學	北宋	慶歷三年	1043	三禮堂	三禮堂→養源堂, 議道堂, 篤說堂→養源堂→明倫堂	淳熙三山志
3	北宋全國	北宋	慶歷四年	1044	?	遂詔天下皆立學, 置學官之員	歐陽修 吉州學記
4	古田縣學	北宋	嘉祐二年	1057	尊道堂	尊道堂→會道堂→明倫堂	古今圖書集成 方輿彙編
5	連江縣學	北宋	嘉祐三年	1058	善養堂	善養堂→篤說堂→進德堂→明倫堂	八閩通志
6	福清縣學	北宋	元豐元年이전	1078 이전	三禮堂	공자 상을 임시로 강당에 모심	八閩通志
7	石門縣學	北宋	元豐八年	1085	成德堂	成德堂→明倫堂	古今圖書集成 方輿彙編
8	(北宋)太學	北宋	元祐六年이전	1091 이전	敦化堂		宋史
9	福州府學	北宋	崇寧元年	1102	養源堂, 議道堂, 篤說堂	三禮堂→養源堂, 議道堂, 篤說堂→養源堂→明倫堂	方輿彙編 職方典
10	古田縣學	北宋	崇寧年	1102~1106	會道堂	尊道堂→會道堂→明倫堂	八閩通志
11	永福縣學	北宋	崇寧元年	1102	養士堂	養士堂→明倫堂	八閩通志
12	羅源縣學	北宋	崇寧初	1102~1106	議道堂	議道堂→明倫堂	古今圖書集成 方輿彙編
13	崇安縣學	北宋	崇寧間(景定壬戌)	1102~1106(1265)	立教堂	立教堂→明倫堂	古今圖書集成 方輿彙編
14	寧德縣學	北宋	崇寧二年	1103	敷教堂		八閩通志
15	長興縣學	北宋	崇寧五年	1106	命教堂		嘉泰吳興志
16	儀眞縣學	北宋	大觀二年이후 靖康二年이전	1108~1127	麗澤堂, 議道堂	麗澤堂, 議道堂→由聖堂	八閩通志
17	興化府學	南宋	紹興二年	1131	道化堂	三禮堂→道化堂	八閩通志
18	汀州府學	南宋	紹興三年	1133	明倫堂	연대가 명확한 첫 명륜당 사례	八閩通志
19	錢塘縣學	南宋	紹興間	1131~1162	明倫堂		咸淳臨安志
20	連江縣學	南宋	紹興七年	1137	篤說堂	善養堂→篤說堂→進德堂→明倫堂	古今圖書集成 方輿彙編
21	連江縣學	南宋	紹興八年	1138	篤說堂	1137중수하고 다음해 다시 중수 善養堂→篤說堂→進德堂→明倫堂	八閩通志
22	邵武軍學	南宋	紹興八年	1138	明倫堂		陳之茂 泮宮紀事
23	溧水縣學	南宋	紹興八年	1138	命教堂		景定建康志
24	漳州府學	南宋	紹興九年	1139	尊道堂		古今圖書集成 方輿彙編
25	興崇府學	南宋	慶元乙卯이전	1139 이전	命教堂		景定建康志
26	尤溪縣學	南宋	紹興十一年이후	1141 이후	明倫堂	朱熹 방문 전에 "명륜당"이 있음	八閩通志
27	新安州學	北宋	紹興十一年	1141	知新堂		新安志
28	鎮江府學	南宋	紹興癸亥이전	1143 이전	半宮		嘉定鎮江志
29	鎮江府學	南宋	紹興癸亥	1143	成德堂	半宮→成德堂→明倫堂	嘉定鎮江志
30	丹陽縣學	南宋	紹興十三年	1143	成德堂		古今圖書集成 方輿彙編
31	南宋全國	南宋	紹興十四年	1144	?	詔天下州縣皆立學.	咸淳臨安志
32	(南宋)太學	南宋	紹興十四年	1144	敦化堂	敦化堂→崇化堂→化原堂→崇化堂	咸淳臨安志
33	(南宋)太學	南宋	紹興十四年	1144 이후	崇化堂	敦化堂→崇化堂→化原堂→崇化堂	咸淳臨安志
34	臨安縣學	南宋	紹興十四年	1144	講藝之堂		咸淳臨安志
35	建寧府學	南宋	紹興十五年	1145	明倫堂	朱熹 「建寧府學明倫堂聯」(시기불명)	八閩通志
36	延平府學	南宋	紹興十五年	1145	進德堂	進德堂→明倫堂	八閩通志
37	溧陽縣學	南宋	紹興二十年	1150	德化堂		景定建康志
38	同安縣學	南宋	紹興六年이후 紹興二十五年이전	1136~1155	明倫堂	朱熹의 현학 증축 전에 명륜당 존재	八閩通志
39	昆山縣學	南宋	紹興二十八年	1158	致道堂		吳郡志
40	宜興縣學	南宋	隆興間	1163~1164(1268)	宣化堂, 明倫堂		咸淳毗陵志
41	儀眞縣學	南宋	乾道三年	1167	由聖堂	麗澤堂, 議道堂→由聖堂	古今圖書集成 方輿彙編
42	海鹽縣學	南宋	乾道三年	1167	傳道堂		古今圖書集成 方輿彙編
43	嚴州學	南宋	乾道五年	1169	明倫堂		景定嚴州續志
44	仙游縣學	南宋	乾道七年	1171	尊道堂		八閩通志
45	尤溪縣學	南宋	乾道九年	1173	明倫堂	朱熹 「重修尤溪廟學記」, 「明倫堂銘」	嘉靖尤溪縣志
46	江都縣學	南宋	乾道九年	1173	明倫堂		金墩祖祠 宋進士黃府年譜
47	義寧精舍	南宋	淳熙元年	1174	?	朱熹 편역(기록)	八閩通志
48	丹陽縣學	南宋	淳熙中	1174~1189	明德堂	成德堂→明德堂→審是堂→明倫堂	方輿彙編 職方典
49	無錫縣學	南宋	淳熙	1174~1189(1268)	明倫堂	朱熹 편역(오래전 복제한 것으로 추측)	咸淳毗陵志
50	寧德縣學	南宋	淳熙二年이전	1175 이전	明倫堂	敷教堂→明倫堂	八閩通志
51	連江縣學	南宋	淳熙八年	1181	進德堂	善養堂→篤說堂→進德堂→明倫堂	八閩通志
52	瓊州府學	南宋	淳熙九年	1182	明倫堂	朱熹 편역(기록)	古今圖書集成 方輿彙編
53	常州學	南宋	淳熙十一年	1184	約禮堂		咸淳毗陵志
54	韶州府學	南宋	淳熙十四年이전	1187 이전	明倫堂		廣東通志

12 논문

55	吉安府學	南宋	淳熙十五年	1188 추측	明倫堂	朱熹편액(기록)	墨池編, 道光吉安府志
56	松溪縣學	南宋	淳熙十五年이후	1188 이후	明倫堂	朱熹 「松溪縣學明倫堂聯」	楹聯叢話 朱子全集
57	金壇縣學	南宋	紹熙初	1190~1194	明倫堂		嘉定鎮江志
58	台州學	南宋	開禧元년이전	1194 이전	明道堂		嘉定赤城志
59	竹林精舍 (滄州精舍)	南宋	紹熙五年	1194	明倫堂	朱熹가 말년에 머물며 건설함	八閩通志
60	金壇縣學	南宋	慶元初	1195~1200	?	朱熹편액(기록)	至順鎮江志
61	(南宋)太學	南宋	慶元初	1195~1200	化原堂	敦化堂→崇化堂→化原堂→崇化堂	咸淳臨安志
62	昆山縣學	南宋	慶元五年	1199	明倫堂	致道堂→明倫堂	古今圖書集成 方輿彙編
63	鹽官縣學	南宋	嘉泰四年	1204	明倫堂		咸淳臨安志
64	海寧縣學	南宋	嘉泰四年이전	1205 이전	明倫堂		古今圖書集成 方輿彙編
65	天台縣學	南宋	嘉定元年	1208	明倫堂		嘉定赤城志
66	仙居縣學	南宋	嘉定元年	1208	明倫堂		嘉定赤城志
67	上杭縣學	南宋	嘉定 十六年	1223	明倫堂		八閩通志
68	丹陽縣學	南宋	寶慶中	1225~1227	審是堂	成德堂→明德堂→審是堂→明倫堂	古今圖書集成 方輿彙編
69	句容縣學	南宋	紹定壬辰	1232	明德堂		景定建康志
70	長泰縣學	南宋	紹定六年	1233	尊道堂		八閩通志
71	武平縣學	南宋	端平	1234~1236	會講堂		古今圖書集成 方輿彙編
72	清流縣學	南宋	端平初	1234~1236	化成堂	化成堂→明倫堂	八閩通志
73	建寧府學	南宋	端平三年	1236	明倫堂	明倫堂→明倫堂	古今圖書集成 方輿彙編
74	金壇縣學	南宋	嘉熙	1237~1240	明倫堂		至順鎮江志
75	(南宋)太學	南宋	淳祐元年	1241		朱熹從祀(先儒)	咸淳臨安志
76	長汀縣學	南宋	淳佑間	1241~1252	麗澤堂		八閩通志
77	興崇府學	南宋	淳祐六年	1246	明德堂	命教堂→明德堂	景定建康志
78	臨安府學	南宋	淳佑六年	1246	養源堂		咸淳臨安志
79	福安縣學	南宋	淳佑八年	1248	明倫堂		八閩通志
80	溧水縣學	南宋	寶祐元年	1253	明倫堂	命教堂→明倫堂	景定建康志
81	上元縣學	南宋	景定二年	1261	明新堂		景定建康志
82	建寧縣學	南宋	景定三年이전	1262 이전	明倫堂		八閩通志
83	江寧縣學	南宋	景定四年	1263	明倫堂		景定建康志
84	丹徒縣學	南宋	景定四年	1263	明善堂	明善堂을 학교로 바꿈	至順鎮江志
85	浦江縣學	元	至元元年(景定五年)이전	1264 이전	明倫堂	기존 명륜당 옆에 사당 건설	浙江通志
86	福州府學	南宋	景定五年	1264	養源堂	三禮堂→養源堂, 議道堂, 篤說堂→養源堂→明倫堂	古今圖書集成 方輿彙編
87	崇安縣學	南宋	咸淳元年	1265	明倫堂	立教堂→明倫堂	古今圖書集成 方輿彙編
88	晉陵武進縣學	南宋	咸淳元年	1265	尊經堂		咸淳毗陵志
89	分宜縣學	南宋	至元二年(咸淳元年)	1265	明倫堂	凡天下之學, 皆名其堂曰'明倫'.	道園學古錄
90	(南宋)宗學	南宋	咸淳六年	1270	明倫堂	立教堂도 함께 있었음	咸淳臨安志
91	廬州府學	元	至元間	1264~1294	明倫堂	개칭	福建續誌
92	雲南行省	元	至元十三年	1276	明倫堂	雲南行省平章賽典赤始建明倫堂, 購貯經史, 因下其式於諸路.	山東通志, 新元史
93	都昌縣學	元	至元己卯之歲	1279	明倫之堂		道園學古錄
94	廣州府學	元	至元十六년이후	1279~1294	明倫堂		古今圖書集成 方輿彙編
95	壽昌縣學	元	至元乙酉이전	1285 이전	明倫堂		浙江通志
96	福寧州學	元	至元二十九年	1292	明倫堂		八閩通志
97	靈川縣學	元	至元二十九年	1292	明倫堂		廣東通志
98	元全國	元	貞元元年	1295	?	詔: ...諸路府州縣邑廟學...修完廟宇.	新元史
99	古田縣學	元	貞元元年	1295	明倫堂	尊道堂→會道堂→明倫堂	八閩通志
100	桂林府學	元	大德初이전	1297 이전	明倫堂		廣東通志
101	福清縣學	元	大德三年	1299 이전(1091?)	尊道堂	북송시기 당호가 이어진 것으로 추측 尊道堂→明倫堂	八閩通志
102	興化府學	元	大德六年	1302	道化堂	남송 1131년 당호가 이어짐 三禮堂→道化堂(→明倫堂(明朝1370))	八閩通志
103	(元)國子監	元	大德十年	1306	明倫堂		堯山堂外紀
104	儋州學	元	至大己酉	1309	明倫堂		古今圖書集成 方輿彙編
105	漳州府學	元	延祐三年	1316	明倫堂	尊道堂→明倫堂	方輿彙編 職方典
106	永春縣學	元	延佑四年	1317	明倫堂		八閩通志
107	羅源縣學	元	延佑五年	1318	明倫堂	議道堂→明倫堂	古今圖書集成 方輿彙編
108	惠州府學	元	泰定二年	1325	明倫堂		廣東通志
109	永福縣學	元	泰定五年	1328	明倫堂	養士堂→明倫堂	八閩通志
110	義烏縣學	元	天歷二年	1329	明倫堂	이건	浙江通志
111	建陽縣學	元	至順乙亥	1335	明倫堂		古今圖書集成 方輿彙編
112	福清縣學	元	至正九年	1349	明倫堂	尊道堂→明倫堂	八閩通志

113	福州府學	元	至正十年	1350	明倫堂	三禮堂→養源堂, 議道堂, 篤說堂→養源堂→明倫堂	八閩通志
114	長樂縣學	元	至正十二年	1352	明倫堂		八閩通志
115	於潛縣學	元	至正十二年	1352	明倫堂		古今圖書集成 方輿彙編
116	龍岩縣學	元	至正十七年	1357	明倫堂		八閩通志
117	石門縣學	元	至正丁酉	1357	明倫堂	成德堂→明倫堂	古今圖書集成 方輿彙編
118	龍巖縣學	元	至正十七年	1357	明倫堂	朱熹기문	古今圖書集成 方輿彙編
119	連江縣學	元	至正二十一年	1361	明倫堂	善養堂→篤說堂→進德堂→明倫堂	古今圖書集成 方輿彙編
120	明全國	明	洪武二年	1369	?	詔天下府州縣立學校.	八閩通志
121	鎮江府學	明	洪武初	1368~1398	明倫堂	半宮→成德堂→明倫堂	方輿彙編 職方典
122	丹陽縣學	明	洪武中	1368~1398	明倫堂	成德堂→明德堂→審是堂→明倫堂	方輿彙編 職方典
123	邵武府學	明	洪武二年	1369	明倫堂		八閩通志
124	仙游縣學	明	洪武四年	1371	明倫堂	尊道堂→明倫堂	八閩通志
125	浦城縣學	明	洪武十二年	1379	明倫堂		八閩通志
126	(明)國子監	明	洪武十五年	1382	彝倫堂		古今圖書集成 經濟彙編
127	明全國學校	明	洪武十五年	1382	明倫堂	仍命以所頒禁例鐫勒臥碑置於明倫堂之左.	禮部志稿

이후의 사료들을 보면, [표3의 3] 1044년 송 인종이 천하에 학교를 건설하라는 조칙을 내린 후에는 지방 유학 교육기관에 관한 기록이 증가하였는데, 강당 명칭은 존도당(尊道堂)<sup>26)</sup>, 선양당(善養堂), 성덕당(成德堂), 양원당(養源堂), 독설당(篤說堂), 회도당(會道堂), 양사당(養士堂), 의도당(議道堂), 입교당(立教堂), 부교당(敷教堂), 명교당(命教堂), 여택당(麗澤堂)<sup>27)</sup> 등으로 매우 다양했다.

### 3-2. 남송(1127~1279)

남송시기에 들어서는 명륜당이라는 명칭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연도가 확인된 가장 이른 사례는 [표3의 18] 1133년 건설된 정주부학(汀州府學) 명륜당이었다. 원문을 보면, 성안으로 부학을 옮겨 지으면서 중앙에 대성전을 만들고, 대성전 뒤에는 강당을 짓고 명륜이라 이름 지었으며, 그 뒤에는 장서각을 짓고 계고(稽古)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sup>28)</sup> 뒤에 이후의 역대 중수 및 건축 명칭이 이어서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명륜당이라는 명칭이 1133년의 건설 직후의 명칭이라는 점을 확정할 수 있었다. 이후 [표3의 19] 전당현학(錢塘縣學) 명륜당

(1131~1162), [표3의 37] 동안현학(同安縣學) 명륜당(1136~1155), [표3의 21] 소무군학(邵武軍學) 명륜당(1138), [표3의 36] 건녕부학(建寧府學) 명륜당(1145), [표3의 40] 선흥현학(宜興縣學) 명륜당(1163~1164(1268)), [표3의 41] 엄주학(嚴州學) 명륜당(1169) 등이 보인다.

[표3의 45] 1173년에 중수된 후 명륜당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우계현학(尤溪縣學) 명륜당은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곳은 주희(1130~1200)의 고향으로 향교의 중건을 기념하여 주희가 써준 「중수 우계묘학기(重修尤溪廟學記)」와 「남검주 우계현학 명륜당명(南劍州尤溪縣學明倫堂銘)」이 전해지고 있는데, 전국의 향교 강당에 주희의 글을 집자하여 명륜당이라는 편액을 거는 전통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가 있다.<sup>29)</sup>

그런데, 우계현학은 이전인 1141년에 파괴되어 당시의 자리로 이건 되었다가 1173년에 중수된 것이었다. 이건 당시 기록에 의하면 “가운데 예전을 짓고, 앞에 양무(兩廡)를 지었으며, 다시 앞에 극문(戟門) 만들고, 전의 뒤에는 명륜당을 만들었으며, 당의 뒤에는 각을 창건하고 편액을 계고(稽古)라 하였다”고 하였는데,<sup>30)</sup> 여기에서 1173년 중수 이전에 강당의 명칭이 명륜당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주희가 우계현학의 강당에 명륜당이라는 당호를 지어 준 것이 아니라 기존 명칭을 그대로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중수 우계묘학기」와 「남검주 우계현학 명륜당명」의 원문을 살펴봐도<sup>31)</sup> 주희가 중수된 강당의 명칭을 명륜이라 정하였

26) 문헌을 보면 존도당이라는 명칭의 건축이 자주 등장하는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주장당이다. 둘째는 보조강당이며, 셋째는 서원의 공자를 모시는 사당이다.

27) 북송시기 의진현학 강당 명칭이다. <표 3> [16]의 연도 추정 근거를 설명하자면, 원문은 “儀眞縣儒學…大成殿北有堂, 曰麗澤, 曰議道, 有閣曰稽古…靖康兵火, 一礎不存”이라 하였는데, 『淳熙三山志·卷第八·公廡類二·廟學』 “大觀二年, 禦筆 ‘比聞諸州學有閣藏書, 皆以經史名者. 方今崇八行以迪多士, 尊六經以黜百家, 而史何足雲. 應已置閣處, 可賜名稽’에 의하면 향교의 계고각이라는 명칭은 대觀二年 즉 서기1108년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의진현학의 여택당과 의도당은 1108년 이후 1127년 금나라의 침공[靖康兵火] 이전에 존재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28) 『八閩通志·汀州府』: “(府學)紹興三年, 郡守鄧強以州學不當置城外, 遂度城內地改創, 卽今學是也. 中爲大成殿, 翼以兩廊, 分列六齋, 殿之後建講堂曰明倫堂. 堂之後建藏書閣曰稽古, 又其後絕高處建閣曰宸奎” 참조. 紹興三年은 서기1033년이다.

29) 중국 우계현 인민정부 홈페이지에 기재된 주자문화연구회의 「주자생평간개(朱子生平簡介)」(2014)에서 주자가 우계현학에 명륜당 현판을 써 준 이후 천하의 학구들의 편액은 모두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30) 『八閩通志·尤溪縣』: “(縣學)紹興十一年寇毀, 縣令彭億徙今所. 中建禮殿, 前建兩廡, 又前爲戟門. 殿後爲明倫堂. 堂後創閣, 匾曰稽古” 참조. 紹興十一年은 서기1141년으로 이건은 그 이후였다.

31) 원문은 『(嘉靖)尤溪縣志·卷二·建置·儒學』 참조.

다는 내용이나 명륜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주희는 [표3의 38] 1155년 동안현학(同安縣學)에 주부(主簿)로 근무하면서 시설을 증축하였는데, “대성전 뒤에 존경각(尊經閣)을 짓고, 또한 명륜당 왼쪽에 교사당(教思堂)을 지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주희의 증축 이전에 이미 동안현학 강당의 명칭이 명륜당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황상 그 이전인 1136년 이건 당시에 명륜당이라 명명한 것으로 추정된다.<sup>32)</sup>

그렇다고 주희가 명륜당이라는 명칭과 관련이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도리어 주희는 명륜을 교육의 핵심 목표라고 생각했다. 주희는 평생 향교와 서원의 건설을 격려하고, 『사서장구집주(四書章句集注)』를 펴내는 등 유학교육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근간에는 『맹자』의 학교를 세워 인륜을 밝힌다는 명인륜(明人倫)의 교육철학이 자리하고 있었다. 주희는 맹자 연구에 심취하여 『맹자집주(孟子集注)』, 『맹자정의(孟子精義)』, 『맹자혹문(孟子或問)』, 『맹자요략(孟子要略)』 등 다수의 저술을 남겼다. 특히 1187년 초등교육 교재로 펴낸 『소학(小學)』에 명륜(明倫)편을 만들고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상·서·학·교를 설치하여 가르친 것은 모두 인륜을 밝히고자(明人倫) 함이다. 성인의 경문을 상고하고, 선현의 전함을 바로잡아 이편을 기술하니 어린 학도들을 가르치려 함이다”<sup>33)</sup>라고 전국에 학교를 세워 유학교육을 전파하려는 본인의 이념이 맹자의 명인륜 철학에 영향을 받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교육철학으로 인해, 주희는 학교 강당의 명칭으로 명륜당을 가장 선호하였다. [표3의 59] 1192년 노년의 주희는 부친이 꿈꾸던 건양현의 한 숲에 집을 짓고 거하였는데, 소문을 듣고 가르침을 청하러 오는 이들이 늘자, 1194년 거처의 동편에 죽림정사(竹林精舍)를 지었는데 앞에는 공자를 모신 연거묘(燕居廟)를 세우고 뒤에는 강당을 짓고 이름을 명륜당이라 하였다.<sup>34)</sup>

그 밖에 주희 생전에 명륜당이라 명명된 곳 중에서 [표3의 52] 경주부학(瓊州府學) 명륜당(1182)의 편액,<sup>35)</sup>

[표3의 55] 길안부학(吉安府學) 명륜당(1188 추측)의 편액,<sup>36)</sup> [표3의 60] 금단현학(金壇縣學) 명륜당(1195~1200)의 편액<sup>37)</sup> 등이 주희의 친필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외에도 주희가 쓴 「건녕부학 명륜당련(建寧府學明倫堂聯)」 「송계현학 명륜당련(松溪縣學明倫堂聯)」 등의 명륜당과 관련된 대련도 전해진다.

주희는 이후 1196년 경원당화(慶元黨禍)로 파직되어 1200년 사망하였으나, 1208년 복권되어 1241년 선유(先儒)로서 문묘에 종사(從祀)되기에 이른다.

<표 3>의 남송시기를 보면 [표3의 18] 1133년부터 [표3의 44] 1168년까지는 다양한 강당 명칭이 공존하다가, 궁교롭게도 주희가 [표3의 45] 우계현학에 중수기와 명륜당명 등의 글을 써준 1173년부터 명륜당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1265년의 한 기문에 “천하의 학교가 모두 그 당을 명륜이라 일컫는다”라고 할 정도가 되었고,<sup>38)</sup> [표3의 90] 1270년에는 남송 종학(宗學) 안에 황명으로 명륜당이라는 명칭의 강당이 건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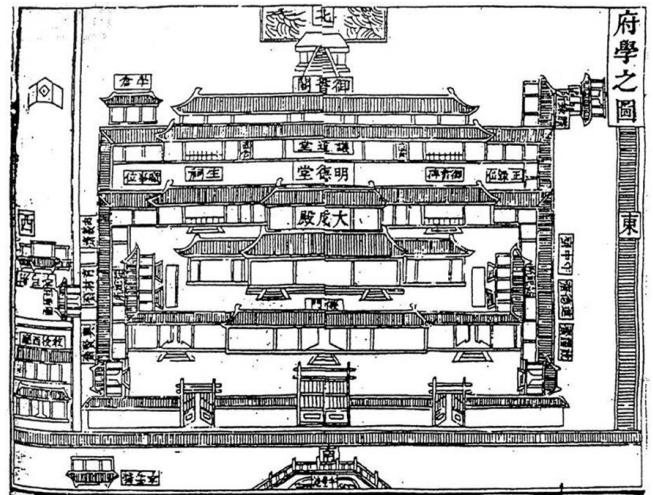


그림 2. 『경정건강지(景定建康志)』 「부학지도(府學之圖)」. 주강당 明德堂과 어서각 아래 부강당인 誼道堂이 보인다.

32) 『八閩通志·同安縣』：“(縣學)紹興六年，邑士陳彥先倡謀遷建今所。紹興二十五年，主簿朱熹建尊經閣於大成殿後，並建教思堂於明倫堂之左” 참조. 紹興六年은 서기1136년이고 紹興二十五年은 서기1155년이다.

33) 『小學』：“孟子曰，設爲庠序學校，以教之，皆所以明人倫也。稽聖經文，訂賢傳，述此篇，以訓蒙士” 참조.

34) 『八閩通志·建陽縣』：“宋朱松尉尤溪時經此，愛其山水清邃，恆欲卜居而未果。紹熙三年，其子熹奉承志，築室居之。五年，以四方來學者衆，因建精舍於所居之東以處之。匾曰竹林精舍，更曰滄州精舍。前爲明倫堂，又前爲燕居廟，以奉先聖” 참조. 죽림정사는 후에 주희 스스로 창주정사로 개칭하였다.

35) 『方輿彙編·職方典·瓊州府儒學』：“(府學)淳熙九年，帥守韓璧重修明倫堂，朱文公書扁” 참조. 淳熙九年은 서기 1182년이다.

36) 『墨池編·卷六』：“宋明倫堂三大字，朱熹書，在吉安府學” 및 『六如畫譜』：“明倫堂三大字，朱文公書，在吉安府學” 참조. 전자의 저자 주장문(朱長文, 1041~1100)은 주희보다 백여년이나 앞선 인물이다. 해당 서적은 사고전서 판본으로서 후인이 주장문 사후 일부 내용을 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길안부학의 공사연혁을 『(道光)吉安府志·卷十五·學校志』에서 살펴보면, 남송시대에는 “淳熙十五年戊申，知軍朱稀顏重建南向”라는 기록만 있는데, 이때 중건 후 주희로부터 명륜당이라는 편액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淳熙十五年은 서기1188년이다.

37) 『嘉定鎮江志·卷十·學校』：“宰李彞重建堂曰明倫，閣曰尊經，齋舍器用俱備。晦庵先生侍講朱公熹書額” 참조. 紹熙년은 서기1190~1194년이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명칭의 강당도 존재하였는데, 1173년부터 1270년까지 강당 명칭이 확인된 총 40개 향교 강당 사례 가운데 명륜당이 23개, 다른 명칭이 17개로, 여전히 다른 명칭도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참조). 또한 결정적으로 태학 강당의 명칭이 명륜당이 아니라 송화당이었음을 보면 아직은 명륜당이라는 명칭이 확고부동한 지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3-3. 원(1206~1368)

원나라의 경우 명칭이 확인된 총 28개 강당 사례 가운데 26개가 명륜당이고, 오직 2개만이 다른 명칭이었다. 다른 명칭의 사례들을 살펴보자.

첫째, [표3의 101] 복청현학(福淸縣學)의 존도당(尊道堂)은 북송시기 11세기 후반에 두 차례의 대규모 건설을 통해 주요 건축들이 완성되었고 남송시기 몇 차례 소규모 증축을 거쳐 큰 파괴 없이 원나라로 계승되었는데, 원나라 1299년에 “경사각(經史閣) 옛터에 당을 두 채 세워 도립(道立), 사정(帥正)이라 이름하고, 존도당 동편에 학관 관사를 건설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sup>38)</sup> 송나라 때의 당호를 그대로 계승하여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송대 당호는 [표3의 114] 원나라 때인 1349년에 명륜당으로 개칭된다.

둘째, [표3의 102] 흥화부학(興化府學)의 도화당(道化堂) 역시 남송 1131년에 붙여진 당호가 계승된 것이다. 원나라 때인 1302년에 중수 했지만 당호는 그대로 쓰다가 명초인 1370년에 명륜당으로 개칭된다.<sup>40)</sup>

사례가 많지 않아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기존 송대

강당을 계승하여 당호를 변경하지 않은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 원나라의 대다수 지방 유학교육기관의 강당은 명륜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획일화의 배경에 혹시 국가적 정책이나 규범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표3의 92] 1276년 운남지역을 평정한 원나라 운남행성 평장사(平章事) 삼쓰 알 딘(賽典赤 瞻思丁 Sayyid Ajjal Shams al-Din Omar al-Bukhari, 1211~1279)이 공자묘와 명륜당을 건설하고 책을 사모아 지역사람들을 교육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그의 셋째 아들이 이를 식(式)으로 정하여 운남행성의 모든 로(路)에 하달했다는 기록이 있다.<sup>41)</sup> 이때 자연스럽게 운남지역에 새롭게 건설된 학교들의 강당 명칭이 명륜당으로 통일되었을 것이다. 또한 [표3의 98] 1295년 성종이 즉위 직후 전국에 묘학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라 명하자, “이때부터 천하 군읍의 묘학이 지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고 전해진다.<sup>42)</sup> 이 글처럼 급속도로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1306년 국자감 건설을 포함하여 점진적으로 전국 향교의 신축과 중수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신축 강당의 명칭을 명륜당으로 짓거나 기존 강당의 명칭을 명륜당으로 개칭해 나갔다. 즉 지역 혹은 전국 규모로 향교 건설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륜당이라는 명칭이 보편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단, 강당의 명칭을 명륜당으로 통일하라는 조칙이나 명문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원나라 때 조정으로부터 하달된 학교 관련 법령과 상세규정을 모아놓은 『묘학전례(廟學典禮)』에는 ‘당’, ‘강당’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1295년 반강된 「행대 좌하사 강구 학교편의(行臺坐下司講究學校便宜)」라는 교육 절차 규정에서는 “(교관이)당에 올라 4서를 강의한다(登堂講書)”, “(문제를)낭무에 게시한다(揭示廊廡)”, “(생원들은) 재에 앉아 독서한다(坐齋讀書)” 등 학교를 구성하는 건축들의 일반명사를 사용하여 기술하고 있다.<sup>43)</sup> 또 1340년 반강된 「관리 지묘학 소향 강서(官吏詣廟學

38) 『道園學古錄·卷三十五·袁州路分宜縣學明倫堂記』: “至元二年…凡天下之學, 皆名其堂曰明倫” 참조. 원시 1292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남송咸淳元年에 해당한다. 남송영토였다가 원에 병합된 후 글을 옮겨적는 과정에서 연호를 원의 것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서기1265년이다.

39) 『八閩通志·福淸縣』: “(縣學)宋元豐元年, 復廣廟地建學. 元祐六年, 知縣方叔完又廣而新之, 市錢塘書籍儲於經史閣. 崇寧初, 增至八十四區, 爲齋三. 淳熙元年, 知縣劉墩增齋爲四. 明年, 改學門南向. 元至元三十年, 縣尹曹璠塑七十二賢像於縣之東西廡. 元貞元年憲使程文海修學門, 仍自書匾. 明年升爲州學. 大德三年, 知州母逢辰即經史閣故址創堂二, 曰道立, 曰帥正. 並建學官廡舍於尊道堂之東偏. 皇慶元年省齋爲六. 延祐五年, 州判乃麻夕移戟門稍進而南, 匾其左曰肅容, 右曰聚敬. 泰定四年, 知州賈思恭葺新兩廡. 至正九年, 知州林泉生以爲前廟後學, 類浮屠梵宇之制, 乃更作之, 左爲明倫堂, 右爲大成殿” 참조. 元豐元年是 서기1078년, 元祐六年은 서기1091년, 大德三年은 서기1299년, 至正九年은 서기1360년이다.

40) 『八閩通志·興化府』: “府學…紹興二年, 知軍趙彥勳增飾講堂, 匾曰道化…大德六年, 教授宋眉年修道化堂…國朝洪武三年, 知府蓋天麟重修, 定四配十哲位次, 飾兩廡像, 改道化堂曰明倫堂” 참조. 紹興二年은 서기1131년이고, 大德六年은 서기1302년이며, 洪武三年은 서기1370년이다. 원문의 道化堂은 道化堂의 오자로 보인다.

41) 『新元史·卷一百五十五·列傳第五十二·賽典赤瞻思』: “(至元)十二年…創建孔子廟明倫堂, 以經史授學者…忽辛, 賽典赤第三子也…先是, 賽典赤建孔子廟, 置祭田, 及卒, 田爲大德寺所有, 忽辛奪還之, 令諸路遍立廟學, 文教大行” 참조.

42) 『新元史·卷八十七·志第五十四·郡縣宣聖廟』: “中統二年夏六月, 詔‘宣聖廟及所在書院, 有司歲時致祭, 月朔釋奠. 八月丁酉, 命開平守臣釋奠於宣聖廟. 成宗即位, 詔‘曲阜林廟, 上都, 大都, 諸路府州縣邑廟學, 書院, 贍學土地及貢士莊, 以供春秋二丁, 朔望祭祀, 修完廟宇’自是天下郡邑廟學, 無不完葺, 釋奠悉如舊儀” 참조. 中統二年은 서기1261년이고, 成宗즉위년은 서기1295년이다.

43) 『廟學典禮·卷五』: “行臺坐下司講究學校便宜…元貞元年…登堂講書…揭示廊廡…坐齋讀書” 참조. 元貞元年是 서기1295년이다.

燒香講書)」에서는 “삭망일에…모두 문묘에 이르러 향을 피우고, 예가 끝나면 중학관과 주선은 강당(講堂)에 이르러 학생들과 민가의 자제로 배우기를 원하는 자들과 더불어 경사를 강의한다”로 일반명사인 ‘강당’을 사용하여 기술하고 있다.<sup>44)</sup>

명륜당이라는 명칭을 규정으로 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표3의 102] 흥화부학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원대 흥화부학 강당은 송대의 도화당을 계승하여 당호 변경 없이 사용하였으며, 한 차례 중수를 하였으나 옛 당호를 그대로 사용하다가, 명초 이르러서야 비로소 명륜당으로 개칭되었다. 원대 흥화부의 높은 행정등급을 감안하면<sup>45)</sup>, 만약 원나라 때 조칙이나 명문 규정이 하달되었다면 실수로 놓치거나 무시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3-4. 명 초(1368~1382)

명 건국 초기 태조 주원장은 원에 의해 훼손된 한족 문화의 복원을 기치로 삼아 국가 예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각 지역에 시급히 학교 건설을 촉구하였다. 홍무2년(1369)의 중서성에 명한 내용을 보면 “학교의 수는 원나라 이르러 그 폐단이 극에 이르렀으니, 위아래로 풍파에 쓰러져 학교는 비록 설치되었으나 이름만 남아있을 뿐 실제로는 사라졌다…경사에 비록 태학이 있으나 천하 학교는 아직 흥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균현에 모두 학교를 세우도록 명하니”라 하였다.<sup>46)</sup>

실제로 현존 명청대 읍지의 학교 관련 기록 중 상당수가 명 홍무년간에 건설되었다.<sup>47)</sup> 예를 들어, [표3의 123] 소무부학(邵武府學)은 조칙이 내려진 직후 서원을 개조하여 학교를 세우고 강당은 명륜당이라 이름 지었다.<sup>48)</sup> 또한 [표3의 124] 선유현학(仙游縣學)은 홍무4년

(1371)에 송대부터 이어내려 오던 학교를 개수하였는데, 강당을 존도당에서 명륜당으로 개칭하였다.<sup>49)</sup>

명 태조 주원장은 지방관이나 부·주·현학에 대해 엄격한 기술을 요구하고 이를 제도화하였는데, 지방관아의 경우 부패를 막기 위해 주요 관원들로 하여금 관아 내부에 살게 하였고, 관아 내부에 정원을 조성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대문을 한 곳에만 만들어 출입하는 이들을 감시하게 하였으며, 전국에 순검사(巡檢司)를 설치하여 각 지방관아를 상시 사찰하였다. 부·주·현학의 경우는 홍무15년(1382)에 12조의 금령을 반포하고 이를 비석으로 새겨 ‘명륜당’ 왼쪽에 설치하게 하고 위반한 자를 처벌하게 하였는데,<sup>50)</sup>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명나라 전국에 반포된 황제의 조칙에서 전국 부·주·현학 강당을 너무나 당연히 ‘명륜당’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는 홍무15년 이전에 이미 강당 명칭이 명륜당으로 통일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어서 홍무24년(1391)에 반강된 규정에 의하면 유사관(有司官)이 삭망 분향을 하고 ‘명륜당’에 이르러 선생과 학생들의 읍을 받는 등의 절차를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명륜당을 일반명사처럼 사용하고 있다.<sup>51)</sup>

그러면 홍무15년 이전에 ‘명륜당’이라 명시된 조칙이나 명문규정이 내려졌던 것일까? 홍무2년에 중서성을 통해 내려진 학교 건설 조칙에 따라 건축명칭을 포함한 시설에 관한 세부 규정이 식(式) 정도의 낮은 등급의 규정으로 전국에 하달된 것은 아닐까? 유사한 사례로, 홍무원년부터 홍무2년 사이에 전국 관아의 건설을 명하는 조칙을 내렸는데, 조정의 기록에는 없지만, 일부 읍지에 당시 지방관아의 표준 배치도인 ‘공서도식(公署圖式)’이 하달되었다는 기록이 있다.<sup>52)</sup> 또 명 태조

44) 『廟學典禮·卷一』: “官吏詣廟學燒香講書…至元六年…如遇朔望, 自長次以下正官同首領官, 率領僚屬吏員, 俱詣文廟燒香. 禮畢, 從學官, 主善詣講堂, 同諸生并民家子弟願從學者, 講議經史” 참조  
至元六年은 서기1340년이다.

45) 송대 흥화부(府)는 원대 흥화로(路)로 변경되었는데, 원대 부와 로는 같은 등급의 행정단위로, 지방행정 단위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이었다.

46) 『明史·志第四十五·選舉一』: “洪武二年, 太祖初建國學, 諭中書省臣曰, ‘學校之教, 至元其弊極矣. 上下之間, 波頹風靡, 學校雖設, 名存實亡. …京師雖有太學, 而天下學校未興. 宜令郡縣皆立學校’ 참조.

47) 명청대 읍지는 완전한 통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수량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표 3>에서 송원대 부분에서 강당 명칭이 확인된 사례 중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부를 선별하여 명초로 정리하였다.

48) 『八閩通志·邵武府』: “(府學)國朝洪武二年, 通判章文旭, 教授林必忠, 謂其地湫隘, 請於省台, 以樵溪書院改建. 中爲大成殿, 前爲

兩廡, 戟門, 櫺星門. 殿之北爲明倫堂, 前爲四齋. 戟門之左爲鄉賢祠. 東廡之東爲神廚, 宰牲所. 西齋之西爲饌堂, 東廡之南爲教官廡舍” 참조.

49) 『八閩通志·仙游縣』: “(縣學)國朝洪武四年, 知縣周從善建東西兩廡, 立從祀先賢位, 爲泮池於戟門之外而橋之, 池之前爲櫺星門, 門西爲泮宮門, 改尊道堂爲明倫堂, 堂之左右爲兩齋, 東西兩廊各爲號房五” 참조.

50) 白昭薰, 『明朝與朝鮮王朝地方城市及建築規則比較研究』, 清華大學博士學位論文, 2013, 70쪽

51) 『大明會典·卷之七十八·學校』: “洪武二十四年, 令各處儒學每遇朔望, 有司官至日早, 詣學謁廟行香. 師生出大門外迎接. 行禮畢, 請至明倫堂. 師生作揖. 教官侍坐. 生員東西序立講書. 提調官考課畢, 退. 師生復送至大門外回學. 其別廟行香, 師生不必隨行. 如遇春秋祭祀, 迎接詔旨, 師生仍依定例” 참조.

52) 『八閩通志·仙游縣』: “(縣學)國朝洪武四年, 知縣周從善建東西兩廡, 立從祀先賢位, 爲泮池於戟門之外而橋之, 池之前爲櫺星門, 門西爲泮宮門, 改尊道堂爲明倫堂, 堂之左右爲兩齋, 東西兩廊各爲號房五” 참조.

는 지방 제사시설의 건설을 촉구하는 조칙을 내렸는데, 수차례의 예제 변경으로 지방관들이 혼란해하자 홍무 11년에 개정된 예제를 요약 정리한 『홍무예제(洪武禮制)』라는 서적을 전국에 배포하였는데, 여기에는 각 예제시설의 배치, 규모, 명칭 등이 수록되어 있었다.<sup>53)</sup>

우선 명나라 때 반강된 학교 관련 조칙과 규정을 모아 놓은 문헌들을 조사하였는데, 『학교격식(學校格式)』에는 학교 시설에 대한 기술이 없었고, 『대명회전(大明會典)』 권78 학교편에는 상기한 홍무 15년 규정보다 이른 학교 시설 관련 규정은 없었다. 국자감 관련 규정에 덧붙여 있을 수 있어 명대 대학지 5종을<sup>54)</sup> 살펴보았으나 역시 그러한 규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다량의 명칭대 읍지들을 살펴보았으나 홍무 초에 관련 시설 규정이 내려왔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았다.

추정하건데, 명 홍무 초 전국 명륜당이 일반명사화가 된 것은 당시 명륜당이라는 명칭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현상을 당시 사람들이 규범화된 전통으로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근거는 바로 [표3의 121] 진강부학(鎭江府學)을 들 수 있다. 진강부학은 명 홍무 초<sup>55)</sup> “군수 양준이 성덕당을 중수하고 시제(時制)를 좇아(從) 명륜으로 개칭하고, 4재를 세우니 이르러 지도(志道)·거덕(據德)·의인(依仁)·유예(游藝)라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시제를 좇아(從時制)”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당시의 제도화된 전통을 따랐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동일시기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 <표 3>에서 보듯 대부분의 부·주·현학이 원대를 거쳐 명륜당으로 개칭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진강부학 지부 양준 등은 이를 시제 즉 규범화된 전통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양준 등은 4재의 명칭도 시제를 따랐는데, 지도, 거덕, 의인, 유예는 『논어(論語)』 술이(述而)장에서 유래한 것으로 다른 읍지들을 보면 당시 다수의 부·주·현학에서 4재의 명칭으로 사용했던 것이었다.<sup>56)</sup>

53) 백소훈, 「명초 사직단 제도 개정과 조선 초 사직단 논쟁」, 건축사연구, 24권 120호, 2015, 31쪽

54) 『국자감통지(國子監通志)』, 『국자감속지(國子監續志)』, 『황명대학지(皇明大學志)』, 『남옹지(南雍志)』, 『속남옹지(續南雍志)』, 『벽옹기사(辟雍紀事)』를 조사하였다.

55) 『方輿彙編·職方典·鎭江府』: “(公署)洪武初, 郡守楊邊即宋元旧址創造…(府學)明, 郡學在定波門內, 郡守楊邊修成德堂, 從時制, 改曰明倫. 立四齋, 曰志道, 據德, 依仁, 游藝” 참조. 진강부학을 명나라 때 군수 양준이 중수하였다고 하는데, 그 앞에 관아 부분에서 ‘홍무 초’에 군수 양준이 관아를 건설했다는 기록이 있어, 진강부학의 명대 중수가 홍무 초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56) 『論語·述而』: “志于道, 據于德, 依于仁, 游于藝”에서 유래하였다. 4재의 명칭을 이것으로 한 사례는 상주부학(常州府學), 석

#### 4. 결론

역대 중국 고문헌에서 학교에서 스승이 강의를 하는 곳을 일반명사로 주로 ‘강당’이라 칭했다. 역대 중앙 유학교육 기관의 강당 명칭을 살펴보면, 북송은 ‘돈화당’, 남송은 ‘승화당’(수차례 개칭)이라 하였고, 원나라는 처음으로 ‘명륜당’을 국자감의 강당 명칭으로 채택하였다. 명나라는 ‘이륜당’이라 하였는데 전국 학교 명륜당들의 시발이 된다는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대 지방 유학 교육기관의 강당 명칭을 살펴보면, 북송시기에는 매우 다양했다가, 남송 초인 1133년에 처음으로 ‘명륜당’이 문헌상에 등장하였으며, 이후 북건 및 강남지방을 중심으로 명륜당이라는 명칭이 증가하였고, 중앙 유학 교육기관의 하나인 종학에 ‘명륜당’이 세워지기에 이른다. 원대에 들어서는 거의 명륜당으로 통일되었는데, 송나라 때 명칭을 계승한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 국자감을 비롯하여 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들이 강당 명칭으로 ‘명륜당’을 사용했다. 명초에 이르러서는 ‘명륜당’이라는 명칭이 ‘시제(時制)’ 즉 규범화된 전통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다른 명칭을 유지하던 소수의 지방 유학 교육기관 강당들도 모두 ‘명륜당’으로 개칭하였고, 늦어도 14세기 말부터는 ‘명륜당’이 공식문서상에서 일반명사처럼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남송시기부터 명륜당이라는 명칭이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주희의 영향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73년 주희는 우계현학 중수기와 「명륜당명」을 써냈고, 이후 경주부학, 길안부학, 금단현학 등에 ‘명륜당’이라는 편액을 써 주었으며, 말년에는 본인이 지은 죽림정사에 강당을 세우고 ‘명륜당’이라 명명하였다. 그 명칭이 자신의 맹자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된 명인륜(明人倫) 교육철학에 부합하여 선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단, 명륜당이라는 명칭을 주희가 처음 쓴 것은 아니다.

이로써 조선 전기 성간의 「명륜당기」에 기록된 당시 선비들이 가졌던 의문, 즉 다양한 명칭이 가능한데, 관습적으로 명륜당이라는 명칭만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 문헌분석을 통해 나름의 대답을 제시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성과는 송, 원대 유학 교육기관의 강당 명칭을 정리하여 ‘명륜당’의 출현과 보편화 과정을 보여주었다는 데 있다. 막연히 추측되던 주희와의 연관성은 직접적인 기록은 찾지 못했으나 다양한 정황 기

문현학(石門縣學), 복주부학(福州府學), 청류현학(清流縣學), 보경부학(寶慶府學), 형주부학(衡州府學), 영주부학(永州府學), 광주부학(廣州府學), 진강현학(晉江縣學) 등 다수이다.

## 18 논문

록들을 찾아 시간 순으로 정리하였다.

부수적 성과로는 원나라 국자감 강당의 명칭이 명륜당이었음을 증명하는 문헌기록을 찾아낸 것과 명 초 명륜당 명칭이 일반명사처럼 쓰이게 된 배경에는 법령이나 규정이 아니라 오랜 기간 강화되어온 전통이 자리함을 밝힌 것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주로 대량의 읍지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현존 송원시기 읍지들이 주로 복건 및 강남지방에 편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이다. 또한 다양한 고문헌들에 과편처럼 흩어져있는 기록들을 모아 엮는 과정에서 부분적 고증 오류나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 원래 명륜당이라는 명칭이 한국으로 수용되는 과정까지 연구에 포함시키려 하였으나 분량 문제로 다음 연구로 넘기고자 한다.

### 참고문헌

- [唐]『沙州圖經』과리국립도서관소장본, 8c
- [唐]蕭嵩, 『大唐開元禮』, 732
- [唐]王涇, 『大唐郊祀錄』, 793
- [宋]朱長文, 『墨池編』, 1066
- [宋]鄭居中, 『政和五禮新儀』 兩淮馬裕家藏本, 1113
- [金]孔元措, 『孔氏祖庭廣記』, 1242
- [元]『廟學典禮』, 14c
- [元]馬端臨, 『文獻通考』, 1322
- [元]虞集, 『道園學古錄』, 1341
- [明]黃仲昭, 『八閩通志』, 1489
- [明]『大明會典』, 1497
- [明]李文充, 『嘉靖尤溪縣志』, 1530
- [明]蔣一葵, 『堯山堂外紀』, 1603
- [明]汝楫, 『禮部志稿』, 1620
- [清]秦蕙田, 『五禮通考』, 1724
- [清]陳夢雷, 『欽定古今圖書集成』, 1728
- [清]孔繼汾, 『闕裡文獻考』, 1761
- [清]永瑤, 紀昀, 『四庫全書』, 1792
- [清]郝玉麟, 『廣東通志』 四庫全書版本, 1792
- [清]沈翼機, 『浙江通志』 四庫全書版本, 1792
- [清]劉湄, 『山東通志』 四庫全書版本, 1792
- [清]畢沅, 『續資治通鑒』, 1801
- [清]李元祿, 『朱子年譜綱目』, 1802
- [清]梁章鉅, 『楹聯叢話』, 1840
- [清]朱承煦, 『吉安府志』, 1842
- [民國]柯劭忞, 『新元史』, 1920
- [朝鮮]閔鍾顯, 『太學志』, 1785
- [日]伊藤東涯, 『制度通』, 1797
- 李修生, 『全元文』, 鳳凰出版社, 南京, 2004
- 曾棗莊, 『全宋文』, 上海辭書出版社, 上海, 2006
- 李勇先, 王會豪, 『宋元珍稀地方誌叢刊(甲篇)』, 四川大學出版社, 成都, 2007
- 李勇先, 王會豪, 『宋元珍稀地方誌叢刊(乙編)』, 四川大學出版社, 成都, 2009
- 白昭薰, 『明朝與朝鮮王朝地方城市及建築規則比較研究』, 清華大學博士學位論文, 2013
- 백소훈, 『명초 사직단 제도 개정과 조선 초 사직단 논쟁』, 건축사연구, 24권 120호, 2015
- 張延昭, 『元代儒學教化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 北京, 2015
- 陳俞志, 『宋元時期閩北地區教育發展之研究』, 索引數位元股份有限公司, 臺北, 2017

접수(2021. 01. 06)

수정(1차: 2021. 02. 24)

게재확정(2021. 03. 05)